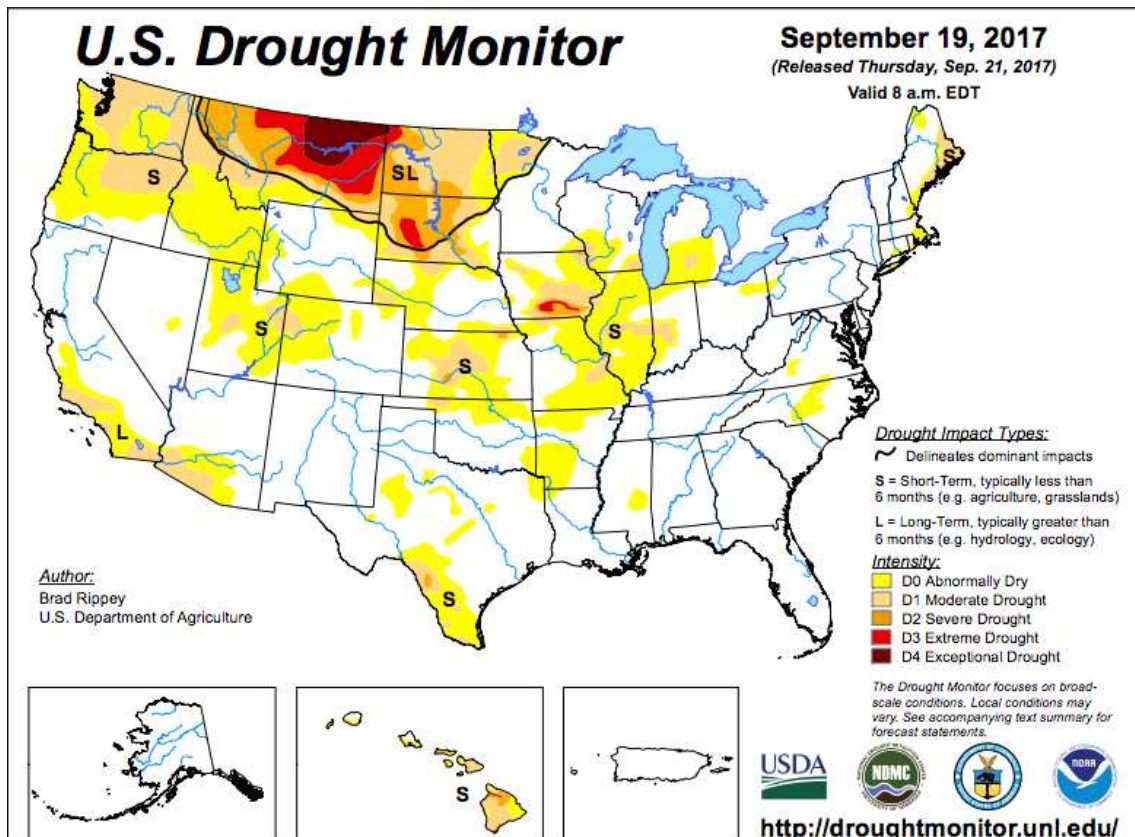


9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9)

□ 미국 기후 현황(9/17~9/23)

9월 20일 허리케인 Maria가 미국령 Virgin Island의 St.Croix를 강타했다. St.Croix 남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당시 허리케인 Maria는 5등급 허리케인으로 최대 풍속이 175mph에 이르는 초강력 허리케인이었다. Puerto Rico에는 같은 날 오전 6시 15분에 상륙했으며, 4등급 허리케인이었던 Yabucco 등에서 약 20플로리다에 상륙했다. 2주전 허리케인 Irma에 의한 피해를 입었던 이들 지역에서는 또다시 산사태와 홍수피해가 발생했고, 그밖에도 St.Thomas, St.John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미대륙 전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날씨가 이어졌다. 다만, 남부와 동부, 중서부 등에서는 9월 초 선선했던 날씨가 물러나고 평년에 비해 따뜻한 기운을 유지했고, 서부에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중서부의 중부와 남부 평원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정도 기온이 높았다.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9월 2일 이후로 낮 최고기온이 90°F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부터 로키산맥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는 최근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9/18~9/24)

동부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고, 반대로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최소 12°F이상 높았다. 전국적으로 평균 강수량은 1.5인치 내외를 기록한 가운데,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이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9/17~9/23)

■ 유럽: 동부에서는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농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러시아 서부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부 유럽 일대의 비구름이 이동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발칸반도 북부, 폴란드 등에서는 10~100mm 내외의 비가 쏟아졌다.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남동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여름작물 수확작업과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9월 후반부터 10월 초까지 비가 내리는데, 이탈리아에서는 5~4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지난 여름동안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그리스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면화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불가리아에서도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5°C 정도 낮았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서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유럽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비구름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중부, 서부 등에서는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또한, 수확을 앞둔 옥수수와 해바라기, 대두 등의 수확량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36°C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겨울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용수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시아: 중국에서는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에서는 1~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남부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가까이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쯔강 주변으로는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는데, 벼 재배지 일대에 충분한 양의 용수를 공급해 주었다.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내린 누적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로 인한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 남부에서는 태풍 Talim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50~2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지난 몇주간 이어지던 맑은 날씨가 끝나고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호주와 빅토리아 등 동부 일대에서도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비가 한두 차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등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밀을 비롯한 겨울작물들의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서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지난 10여일 간의 맑고 따뜻한 날씨 뒤에 비가 찾아왔다. 강우량은 10~40mm 내외로, Parana강 주변 지역에서부터 Buenos Aires 북부 일대, Entre Rio, Santa Fe 등에 비가 내렸다.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역인 La Pampa, Buenos Aires 남동부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고, 밀과 보리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북부 일대에서도 최근 비가 내렸던 Corrientes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Cordoba, Santa Fe 등에서는 옥수수 파종작업이 진행 중이다.

■ 브라질: 중부와 남동부에서는 계속해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Mato Grosso, Parana 등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등에서는 10mm가 조금 넘는 비가 내렸다. 중부와 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지만 금방 그쳤고, 10월까지의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46%였고,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1%, 12%였다.